



대구광역시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5338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since 1996

오늘의 날씨 대구 -3~0℃ 경북 -5~-1℃

단기 4356년(음력 11월 8일)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www.dgy.co.kr

경북도내 산업단지 안전불감증 ‘빨간불’

도, 산업단지 합동 안전감찰 부적정사례 56건 무더기적발

시군과 관리공단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도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

산업단지 내 지게차·중장비 사고, 기계 끼임, 중량물 낙하, 누전·폐기물 관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물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폭발 등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었다.

감찰대상은 도내 일반산업단지 26곳, 농공단지 8곳이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56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시군, 관리공단 등 관리기관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공장등록 사항 의무 점검 미이행,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 소홀, 입주기업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소홀, 산업단지 임대신고 관리 소홀 등이다.

산업단지 내 개별 공장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했다.

지게차 시동키 미분리·신호수 미배치, 크레인



봉양면, 성금 모금행사 2년 연속 1억 초과

의성군 봉양면이 지난 14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봉양면이웃돕기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성금 모금행사에서 1억756만9980원을 모금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면 단위 성금 모금행사에서 1억을 초과했다. 사진은 봉양면이 모금행사를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안전검사 미실시·안전고리 파손,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지침 등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화전 미작동, 방화구역 물건 적치, 인화성 물질 보관 불량 및 위

험물 저장탱크 관리 불량, 가스용기 및 가스시설 관리 불량 등 소방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점이 많았다.

도는 이번 감찰로 지적된 사항 중 산업단지 내 작업자 안전과 직접적인 위험한 사항은 현장에

서 사업주에게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감찰 결과는 도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전파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감찰로 지적된 사항들이 시군 및 관리기관이 산업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홍준표, 여당 일부 의원들 겨냥 김기현 밀다가 닭 쫓던 개 신세

“김기현 밀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더니 한동훈 밀어 연명하러 몸부림 치는구나”



홍준표(사진) 대구 시장이 여당 내 일부 의원을 겨냥해 “들보잡들이 당 망쳐 놓고 아직도 저리 설친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려는 기류와 관련해서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밀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더니 한동훈

밀어 연명하려고 몸부림 치는구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참 많이 타락했다”며 “들보잡들이 당 망쳐 놓고 아직도 저리 설친다”가 당이 온전하냐”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하기사 오늘월 때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다만”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 대표를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다. 김기현 대표 실책이 바로 그런거 아니었나”라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당협위원장 연석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미래세대 건전재정 운용 전국 최고

작년 대통령상 수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대통령·국무총리상 대구시 ‘전국 유일’

대구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평가단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본상 진출 대상을

선정했다.

이들 중 최종 발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시는 ‘대구시 재정위기 대응 모델, 앞으로의 재정위기 상황에 표준지침이 되다’라는 주제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을 사례로 발표해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은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철저히 발굴·제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해 적재적소에 재배분해 세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모범적인 재정위기 돌파 방식이다.

시의 재정위기 대응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 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구광역시의 모델을 위기 극복방안으로 적극 원용해 왔다.

정부는 대구시 비상재정 모델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재정위기 극복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평가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취임과 동시에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혁신의 노력들이 2년 연속으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앞으로도 대구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굳건히 유지,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올바른 역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받는다.

조여은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달성군, 구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탄력

행안부 특별교부세 25억 확보 2027년 개관을 목표 쾌속순항

달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구지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평생 일터로 여기던 토지가 산업단지

에 편입되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주민들과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은 달성군 구지면 대구 국가산업단지내에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수

영장, 문화강좌실, 영유아돌봄센터 등이 설치된다.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구지지역 내 문화인프라에 대한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 중이었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아 사업기간도 당초보다 앞당겨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주변은 415개 이상의 기업에서 1만 4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엘엔에프에서 2조 5,5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성사, 앞으로 이차전지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대구의 대표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지지역의 문화·체육·편의시설 등 인프라 부족은 수년간 제기됐다.

대구시와 엘엔에프 간 대규모 투자협약 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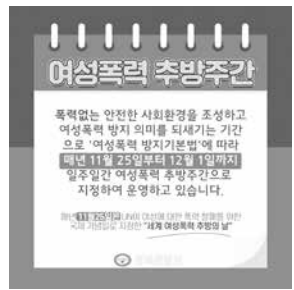
도 구지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만큼 구지지역 내 문화인프라 개선은 최우선 과제였다.

공모사업 선정은 달성군의 발빠른 대처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몫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공모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경찰, 도내 여성들 각종 폭력 걱정마

여성폭력 예방·근절추진 기간 운영 선제적인 피해 여성 안전확보 주력



경북경찰청이 여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폭력 예방·근절추진 기간을 운영했다.

여성폭력 예방·근절추진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추진됐다.

경찰은 이번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여성폭력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공익광고 등)를 통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했다.

도내 11개 시·군 시내버스(1092대) 내에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654대)에 여성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선보였다.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폭력 주간 설문조사 결과 퀴즈이벤트에는 680명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여성 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

기 조성에 동참했다.

홍보 기간 중 SNS 등 온라인 홍보 34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46회, 지역주민 대상 여성폭력 예방 교육(11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같은 기간 안동경찰서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O-X 퀴즈이벤트 및 가족사랑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산경찰서는 지역 대구카톨릭대 등 10개 대학을 찾아가 여성청소년수사관이 직접 스톱, 교제·성폭력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관리 중인 재발유려가정(197가정)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제적인 피해 여성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했다. 성·가정폭력, 스톱킹 등 여성폭력 범죄피해 여성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솔루션 회의와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속운영한다.

여성폭력의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수사로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가해자에게는 성향 교정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재범 방지에도 노력한다. 김성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2심 승소...

추미에 전 장관 당시 징계 이후 3년만 법 "1심 취소하고 징계처분 취소하라" "적법절차 어긋나...징계처분 모두 위법" 尹 측 "이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 법무부 의도적 패소 의혹엔 "대단한 모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중호 이승환)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1월 당시 추미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뒤집어 취소했다.

2심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상 대원칙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청구자가 사건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심은 "징계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추 전 장관이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 후 1차 심의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정환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 등은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검사징계법 5조·6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한 경우 해당 사건 심의에 관해서는 적법하게 행사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2심은 당시 징계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기피 신청에 대해 검사징계법을 어기고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 없이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할 수 있지만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 심의와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지적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2026년 출범 목표

경주 양남면 나산리에 동지... "원전해체 산업 플랫폼 기능"

중수로 원전 해체기술 실증연구를 담당할 거점시설이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착공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원복연)은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부지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수원, 한전KPS 등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달리 중수로 해체 실증연구를 중점 담당한다.

기술원은 사무연구동을 비롯해 현장과 유

사한 환경에서 절단·제염 등을 실험할 목표(Mock-up) 시험동, 실증분석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된다.

원복연 본원과 함께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수로 중심의 본원과 함께 국내 해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 착수하는만큼 원복연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연구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행사에서서는 일선에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담당자와 한수원,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임·직원 총 1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수여됐다. 윤용찬 기자



사진은 '2023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 영남초등학교 화재 펌프차 훈련 모습

경북교육청, 안전 한국훈련 2년 연속 최우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소통 직접 주재 훈련 관심도 높였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 달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안전 한

국훈련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 기관·단체, 대학, 국립대 병원과 각급 학교에 대해 평가하고 경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교육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관계기관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연계 훈련(토론+현장)으로 훈련을 진행한 점과,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도록 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과 소통하며 훈련을 직접 주재해 훈련의 관심도를 높인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실제 재난 발생을 가정해 관계기관 참여와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 기관과 학교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이번 선정의 주요인이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훈련에서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학생·교직원 등의 인명과 교육재 산 피해 최소화를 하는 체계를 점검했다"며 "안전 한국훈련이 공무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대구학교 현장에 울려 퍼진 따뜻한 사랑

대구교육청, '2023 사랑 나눔' 교육기부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대구교육청은 19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기부 유공자 51명과 유공기관(단체) 21곳에 교육감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응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온정의 손길이 담긴 사랑 나눔' 덕분에 교육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나눔과 배려가 교육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앞장서준 모든 기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 나눔 교육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기관 단체다.

'사랑나눔 교육기부사업'은 2012년 대구교육청에서 설립한 교육기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유치원~고교까지 모든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지원한다. 황태웅 기자

DGB금융그룹, NIE 환경일기 공모전 시상

대구 월암초등 류연후 군 영예

DGB금융그룹은 제15회 전국 초·중·고 NIE 환경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2009년 시작, 올해로 15회를 맞은 NIE 환경일기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신문을 통해 환경에 대

한 지식과 깊이 있는 사고를 함양하도록 DGB금융그룹과 닥터안자연사랑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대구시교육청, UNGC 한국협회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는 류연후(대구 월암초)군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대구시교육청교육감상)은 이하준(대구월서초)군이, 최우수상(DGB금융그룹회장상)은 김소정(진량초)양이, 금상(UNGC한국협회회장상)은 이다은(대구월암초)양이 각각 수상했다.

은상(DGB금융그룹회장상)은 최정민(사남초)양 4명, 동상은 최유아(침산중)양 11명, 실천상은 최하린(호계초)양 6명, 장려상은 박현우(대구침산초)군의 99명이 선정됐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아냐 대부분 혼자사는 세상 돼 버린지 오래

대구 1인 가구 중 39.8% 중장년층 혼자사는 이유 '본인 독립' 1위 경북 1인 가구 중 37.3% 중장년층 혼자산 기간 5년 이상 가장 많아

나홀로 사는 중장년층이 많다. 혼자사는 기간이 5년이 넘는다. 도시·농촌 어디든 '나 혼자 산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말 그대로 1인가구가 대세다. '나만 혼자'가 아니라 대부분 혼자 사는 세상이 돼 버린지 오래다.

■ 1인가구 비중 올해 35.1%

지역적으로는 도시에는 젊은 층 1인가구가 많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노령 층 1인가구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동시에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39세 이하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비자발적 미혼(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40~50대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2022년 기준)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이른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3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38.5%)이다.

그다음이 서울(38.2%)이다.

반면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30.2%)과 경기도(30.2%)다.

세종은 39세 이하 1인가구 비중이 50% 이상인 반면, 전남은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이 50% 이상이다.

아직은 수도권 대도시 39세 이하의 1인가구 비중이 높다.

지방 대도시와 도지역에서는 60대 이상의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40대와 50대 1인가구도 점차 늘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귀농·귀촌 등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중에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귀농·귀어·귀촌한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귀농 75.3%, 귀어 77.3%, 귀촌 77.6%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귀농·귀어·귀촌 모두 1인가구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귀농·귀촌의 주체가 남자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도시에서는 중장년층 중 여성 1인가구가, 농촌에서는 남성 1인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에 비해 소득도 낮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지만 나름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인간관계에 만족했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0%가 넘었다.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 층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자 가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56%,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은 40%를 상회했다. 특히 1인가구 구성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었고 독일 괴팅겐도 67.7%에 달했다.

■ 1인가구 대책 필요

아이러니하게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1인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 바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 중 공통적인 것은 거주지(주거공간) 지원이다.

1인가구형 공동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

거수당 다양화 등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 혼자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돌봄과 공동체 유지·강화에도 많은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은 2018년 초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내각에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로 금융적 접근이 대세다. 자가주택 보급에 초점을 맞춰 주택자금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임대료 바우

은 많이 진화되고 종류도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돼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체감이 높아져야 한다. 다만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자칫 결혼을 더 미루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 데 일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다 모두가 혼자사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 대구 1인가구 중 39.8%는 중장년층

대구 전체 1인가구에서 중장년층이 3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 독립이며 기간은 5년 이상이 많았다.

1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 중장년

나타났다.

중장년층 1인가구 중 50.7%는 5년 전인 2015년에도 1인 가구였다.

5년 전 거주지가 대구가 아닌 비율은 32.6%였고 이 중 28.2%는 1인가구가 아니었다.

거처 종류는 단독주택(45.8%), 점유 형태는 월세(47.9%)가 많았고 사용방수는 2개 이하가 63.6%를 차지했다.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 독립(37.6%), 본인 직장(25.9%), 가족 사유(23%) 순이며 남성(40%)과 여성(35.5%) 모두 본인 독립이 가장 많은 이유였다.

혼자 산 기간은 5년 이상(63.4%)이 가장 많았다.

대구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제활동 비율

1인가구 중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6.9%)은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3.2%)보다 3.7%p 높았다.

연령 별로는 60~64세(9.5%)가 가장 높았고 활동제약비율은 계단 오르기, 보는 것 순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가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되며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광역시의 1인 가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40~64세) 1인가구 특성을 분석했다.

■ 경북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은 37.3%

경북 전체 1인 가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집계됐다.

혼자 산 기간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본인 직장, 여성은 가족 사유가 가장 높았다.

같은날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북 중장년층 1인 가구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경상북도 전체 가구 113만 2000가구 중 1인 가구는 38만 9000가구로 34.4%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중장년층(40~64세)이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년층(65세 이상)은 34%, 청년층(15~39세)은 28.7%로 집계됐다.

2020년 경북 중장년층의 '1인가구'는 2015년 대비 29.8% 증가했다.

반면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은 1.9%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증가율이 53.3%로 여성 7.5%보다 45.8%포인트(p) 컸다.

일반 가구에 사는 전체 중장년층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은 14.1%다.

성별로는 여성(12.2%)보다 남성(15.9%)이 높았고 연령대는 60~64세(17%)가 가장 컸다.

혼인 상태는 사별(45.6%), 이혼(45.3%), 미혼(43%) 순이었고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이하(15%)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북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46.1%는 5년 전인 2015년에도 1인 가구였다.

5년 전 거주지가 경북이 아닌 비율은 40.8%였으며 이 중 34.5%는 1인 가구가 아니었다.

거처 종류는 단독주택(50%), 점유 형태는 자기집(48.6%)이 많았다.

사용방수는 3개(39.5%), 2개(35.3%) 순이다.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 직장(37.1%), 본인 독립(26.9%), 가족 사유(21.2%) 순이며 남성은 본인 직장(46.1%), 여성은 가족 사유(28.7%)가 가장 높았다.

혼자 산 기간은 5년 이상(61.7%)이 많았다.

경제활동 비율(71.8%)은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72.7%)보다 0.9%p 낮았다.

사회활동 비율(30.5%)도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37.5%)보다 7%p 낮았다.

중장년층 1인가구의 직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1%), 서비스 종사자(16.2%), 사무 종사자(12.8%) 순이다.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20.1%), 농업·임업 및 어업(10.6%), 숙박 및 음식점업(10.3%) 순이다.

생활비 전부를 본인이 직접 일해 마련하는 비율(63%)이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45%)보다 18%p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69.5%)의 '본인 일' 비율이 여성(54.1%)보다 15.4%p 높았다.

경북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5.6%)은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3.4%)보다 2.2%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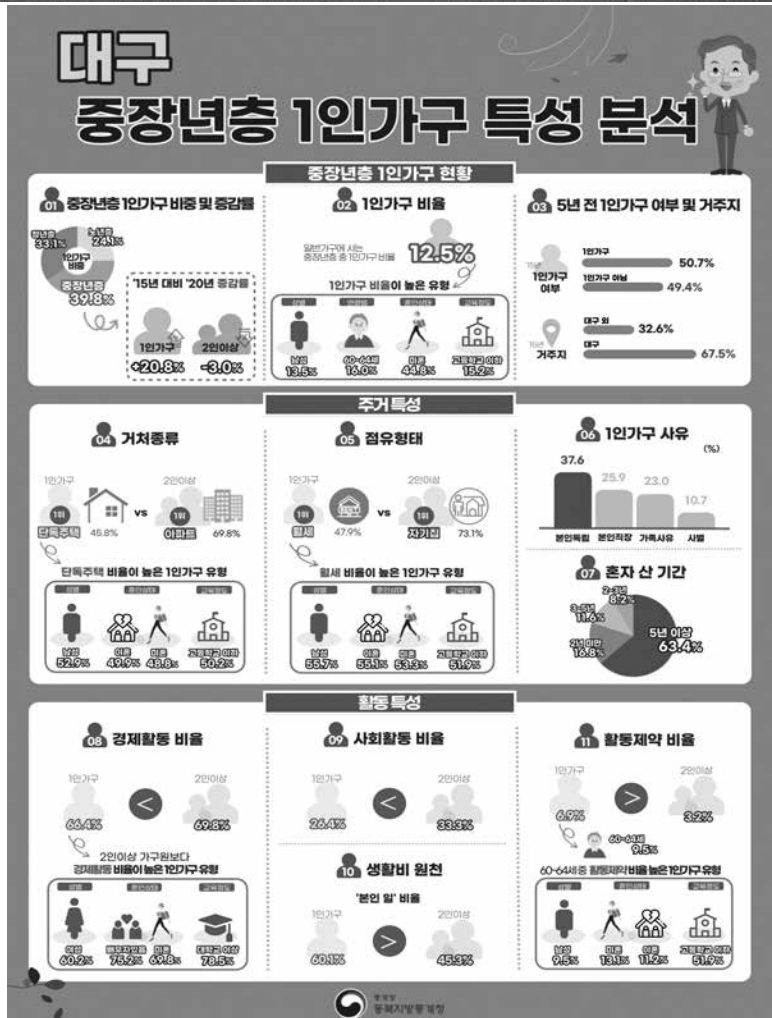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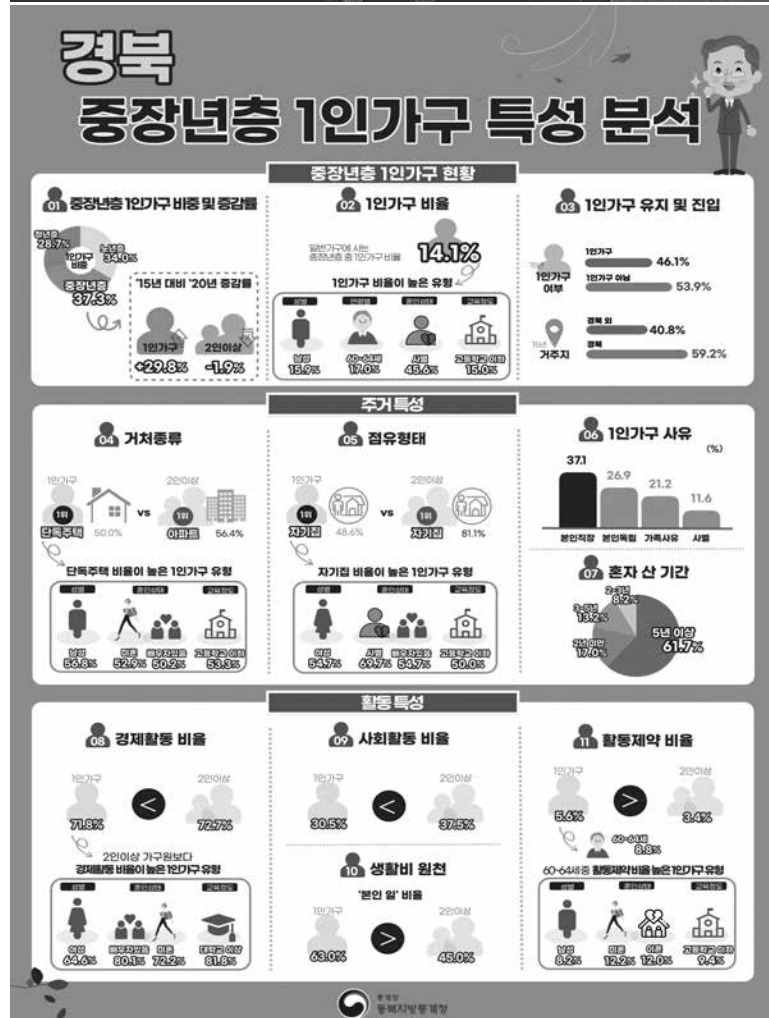
유형별로는 걷거나 계단 오르기(3.8%), 보는 것(1.6%), 기억 및 집중하기(1.5%) 순이다.

나이별로는 60~64세(8.8%)가 가장 높았다.

60~64세에서는 미혼(12.2%) 및 이혼(12%)이 사별(6.7%) 및 배우자 있음(4.5%)보다 높았고 고교 이하(9.4%)는 대학교 이상(5.7%)보다 활동제약 비율이 높았다.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가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되며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은 경북도의 1인 가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처를 활용했다.

일본은 고령자 1인가구 정책이 발달했다.

사회적 돌봄시스템 사례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 등이 연계해 종합 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학대 방지), 개호(간병) 예방 매니지먼트(경증·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 지원(매니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고 급형 노인주택이나 거주시설의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근에 병원이 있으며,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이런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입지경쟁이 치열하다.

해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우리의 1인가구 정책

중 1인가구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대구광역시 전체 1인가구 30만 5000가구 중 중장년층(40~64세)은 39.8%, 청년층(15~39세)은 32.8%, 노년층(65세 이상)은 27.4%로 집계됐다.

2020년 대구 중장년층의 '1인가구'는 2015년 대비 20.8% 증가했지만 '2인 이상' 가구 중 장년층은 3% 감소했다.

1인가구 성별로는 남성의 증가율이 31.5%로 여성 10.6%보다 20.9%포인트(p) 컸다.

일반 가구에 사는 전체 중장년층 중 혼자 사는 1인가구 비율은 12.5%며 성별로는 여성(11.5%)보다 남성(13.5%)이 높았다.

연령대별 비율은 60~64세(16%)가 가장 컸고 여성(18.2%)이 남성(13.7%)보다 4.5%p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미혼(44.8%), 이혼(41.7%), 사별(38.9%), 배우자 있음(3.2%) 순이었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이하(15.2%)에서 높게

(66.4%)는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69.8%)보다 3.4%p 낮았다.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보다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1인가구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60.2%),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75.2%) 및 미혼(69.8%), 교육 정도는 대학교 이상(78.5%)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인가구의 직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 서비스 종사자(14.9%), 사무 종사자(14.8%) 순이다.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18.7%), 도매 및 소매업(13.5%), 건설업(11.2%), 숙박 및 음식점업(9%) 순이다.

생활비 전부를 본인이 직접 일해 마련하는 비율(60.1%)이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45.3%)보다 14.8%p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67%)의 '본인 일' 비율이 여성(52.5%)보다 14.5%p 높았다.

경북 중장년층 1인가구 중 활동제약이 있는 비율(5.6%)은 2인 이상 가구 중장년층(3.4%)보다 2.2%p 높았다.

유형별로는 걷거나 계단 오르기(3.8%), 보는 것(1.6%), 기억 및 집중하기(1.5%) 순이다.

나이별로는 60~64세(8.8%)가 가장 높았다.

60~64세에서는 미혼(12.2%) 및 이혼(12%)이 사별(6.7%) 및 배우자 있음(4.5%)보다 높았고 고교 이하(9.4%)는 대학교 이상(5.7%)보다 활동제약 비율이 높았다.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가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되며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은 경북도의 1인 가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했다.

김성용 기자

포항 올린
영덕 올림



지방세 홍보용 달력 배부

영덕군은 마을세무사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홍보용 탁상 달력'을 1000부 제작해 배부한다.

달력에는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국세 납부 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세무사제도와 고향을 살리고 세액공제와 담례 품 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영덕군은 해당 달력을 오는 20일부터 읍·면 주민센터와 군청 재무과에서 방문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을 발굴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 농협은행 이웃돕기 성금

NH농협은행 포항시지부는 18일 포항시청을 방문했다.

농협 측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

NH농협은행 포항시지부는 매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단체를 위한 사랑의 쌀 전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포항시 장학회 장학금 기부 등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진혁 NH농협은행 포항시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성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

그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향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창명 기자

포항시-대구한의대, 해양산업 발전 '맞손'

이강덕, 지역 해양 자원 개발 해양산업 르네상스 시대 연다

포항시는 대구한의대학교와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산업 공동 발전' 업무협약식을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와 대구한의대학교는 향후 △해양 교육·문화 관련 환동해 해양 교육문화 센터 운영 △해양수산물 식품 관련 HMR 연구개발 △해양치유 소재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해양인문 발전 및 마린 관광 개발 △청년들의 어촌 정착 및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 운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교육·문화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며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으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양산업 활성화와 전락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교육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을 모으

며, "포항이 가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양자원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시민 대상 해양 문화 홍보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교육 자료 개발 등을 강화하며 지역의 해양 문화 활성화에 앞장선다. 정창명 기자

영덕서 열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성료

6070대 장·노년층 14개팀 참가 녹슬지 않은 체력과 기량 뽐내

영덕군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한 2023 STAY영덕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강구대체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60대와 70대 전국 동호인 축구 14개 팀이 참가해 장년층과 노년층의 녹슬지 않은 체력과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는 포항 백호FC가 60대 부, 경기누림FC가 70대 부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베드로FC가 60대 부, 충북OB가 70대 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클럽의 명예를 드높이고 활기찬 인생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특교세 1억원 확보

울진군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종합지침 개정 사항 반영, 판매실적, 부정 유통 단속 노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주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

한 KBPay 간편결제 도입, 농어민수당, 체육대회 시상금 등 정책수당 발행, 공공배달업 먹거리 연계(울진사랑카드 결제율 71%)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진사랑카드는 12월 현재 사용액 552억원을 달성했다. 군은 연말연시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100만원, 할인율 15%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들이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울릉주민 정형외과 진료 '이상 無'

의료원, 새 전문의 초빙 채용 장기간 의료 공백 우려 해소

울릉군의료원이 주민들의 의료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웠다.

지난 8일 정형외과 전문의의 계약만료로 섬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이 장기간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의료원은 18일부터 새로운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 채용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채용된 전진욱 정형외과 전문의는 부산 백병원,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개인병원 등 22여년간 관련분야에 재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울릉군 보건의료원

에서 펼친다.

김영현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은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하여 지역 특성상 정형외과 진료 수요가 많은데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 의료원 직원들은 전심전력을 다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았으나 계약만료로 또다시 육지 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뻔 했지만 새로운 정형외과 전문의의 채용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포스텍 연구의대' 서명운동 활발

포스텍 연구중심대의 설립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포항 시민 등 2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포스텍 연구중심대의 설립 범시민대회 이후 보름만인 15일 2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울진군과 영덕군을 찾아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역 의료 혁신에 공동협력하기로 손을 잡았고, 경주시와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와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포항시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후 대통령



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범지역 차원의 협력과 역량을 집결해 '포스텍 연구중심대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경상북도 Golden City Gyeongju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은...



고령교육지원청, 교장 회의

고령교육지원청은 19일 고령청 대가야홀에서 겨울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및 주요업무 전달을 위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겨울방학 대비 학생 생활교육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방역, 교육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각급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 계획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각종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배영백 기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우수

청도군은 2023년도 저소득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은 지난 18일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건강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보험료 부과된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청도, 국·도비 확보 공격적 대응, 빛을 발하다

공모사업 역대 최대 1362억 확보 지방소멸 극복, 현안사업 탄력

청도군이 공모사업에 1362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과 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사전 계획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군은 대형 공모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현재 40건, 13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공모 선정 규모 대비 200%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청도군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89개 지자체에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A등급에 선정돼 역대 최대규모

인 11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군정에 특화된 기금사업 추진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방소멸 위기를 적극 극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역협력타운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등 대형사업의 경우 청도군수가 직접 PT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단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청도군의 핵심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미국에서도 발휘됐다.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서 청도군이 조성 예정인 명품전원주택단지 '청도 인터내셔널 뉴 빌리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김하수 청도군수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해 해외 동포 CEO들로부터 높은 성장 가능성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251억 원 규모의 '화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청도읍성,



청도군청 전경

석빙고, 도주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계획으로 도시기능 창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

는바, 그 어느 때보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다. 전 직원이 핵심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발굴 등 군정 추진에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1조 4220억원 편성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

신속한 마무리위한 예산편성

경산시는 지난 1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 4346억원)보다 126억원 감소한 1조 4220억원 규모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2023년도 마지막 추경인 만큼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 규모가 줄어든 추경예산안이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원(0.7%) 감액된 1조 237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원(4%) 증액된 15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96억원(28.1%) 감액된 245억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정부로부터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 561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회수에 증액 편성하는 등 줄어든 지방교부세에 따른 재정 규모 감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9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8억원, 국토부 공모사업인 고령밀 전차지도 구축사업비 50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의 재정 규모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21일 열리는 제251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신경운 기자

기업하기 좋은도시 영천...



영천시는 19일 '2023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대상상을 수상했다.

2018년 장려상, 2019년도 우수상 수상 이후 4년 만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MOU 체결 금액 및 건수,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사후관리 실적,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조정 협력 등 여러 항목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금융시장의 약제와 불안정한 투자환경의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자동차 차체 및 차대 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화신과 MOU를 체결해 800억 원 투자와 고용인원 123명 신규 고용을 이끌어냈다.

또, 국내 물류분야 시장점유율 4위인 물류대기업인 로젠(주)과 1259억 투자와 직접적 고용 창출 930명의 MOU를 체결도 성공적으로 이룬 덕분에 얻은 값진 결과이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 5년 연속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 최우수상

농업환경변화 맞추는 노력결과

영천시는 지난 15일 경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FTA기금사업 및 과수분야 도비사업 시군 관계자 회의 및 '23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식'에서 경북 22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 우수상,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 수상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과수산업육성시책평가에 경북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과수산업 육성 시책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으며, △과수분야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시군 과수분야 차별화된 자체사업 및 특색시책 △공모사업 선정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과수산업 육성시책 추진 노력 △지자체 관심도 등 5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평가했다.

시는 이번 시책평가에서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및 2023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 시 자체 신규사업 발굴, 업무협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영천시의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천시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칠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확대

한솔농농조합법인 호이장학금 기탁

확대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학교급식 공급방안을 협의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과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칠곡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과 학교급식 등 판로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 마련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됐다.



칠곡군은 지난 18일 관내 39개 학교에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재배 농가

Advertisement for '영양' (Nutrition) featuring 'ZOOM' and '영양 들여다보기' (Looking into Nutrition). It includes images of nature, food, and text about health and nutrition.

경주시, (주)일지테크 신증설 400억원 투자양해각서

30명 신규고용창출 경주1·2·3공장 이은 네 번째 통근 투자

글로벌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인 (주)일지테크가 경주에 또 다시 통근 투자를 약속했다. 시는 1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일지테크와 투자금액 400억원, 고용 창출 30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주4공장 신·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구준모 (주)일지테크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증설은 기초 부품 납품업체 다수가 외동지역에 분포돼 있고 완성 자동차 차체 부품 상당 거래처가 울산지역에 집중돼 있어 접근성의 이점이 있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계획됐다. 투자협약에 따라 (주)일지테크는 2025년까지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 임대공장과 연접부지 총 2만3500㎡를 매입해 전기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용 신차 차체 부품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모화산단 내 2014년 1공장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 경주2공장 650억원 증설투자, 30명 고용창출을 비롯해 2021년 경주3공장 815억원 국내 복귀투자, 50명 고용창출에 이은 네 번째 투자이다. 동시에 전 공정을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도 갖춘다. 시는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주)일지테크는 1986년 대구에서 창업해 현재 경산(본사), 경주, 중국 북경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1992년 코스닥 상장등록, 1996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설립, 2014년 현대자동차품질5스타인증 획득, 2016년 월드클래스300선정 등 창사이래 꾸준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를 활용, 미래 성장형 연구환경과 투자·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 성료 문경시보건소의 '2023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행복교실'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약 진료실이 없는 지역 3개소(문경읍, 영순면, 산양면)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사업에 참여한 3개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문동수 기자 (사진=문경시제공)

의성군, 올해 참 큰일 해냈다...상복터져

'2023 경북도식량시책' 평가대상 수상 큰 영예 2023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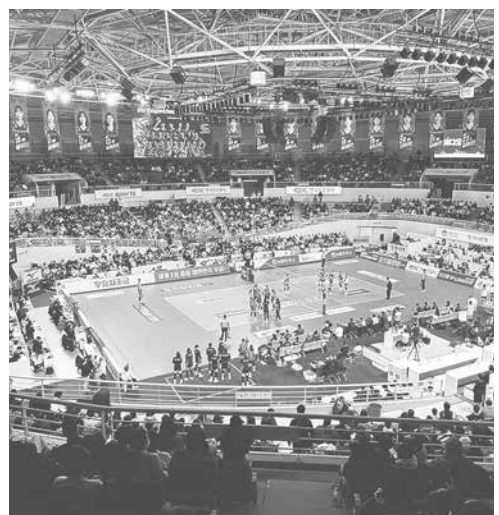
의성군이 올해 상복이 터졌다. 2023년 식량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성군의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와 주민욕구를 반영,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 식량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 의성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식량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농정평가 '대상'에 이어 식량시책 평가 '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분야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올해 의성군은 소규모도농정공장시설현대화, 산물별 건조비 지원 등 근저체사업 추진을 통한 식량산업 육성과 더불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했다.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해 벼품종다양화생산지원을 하는 등 2023년 식량시책 분야 전반에 걸

친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의성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쓴다.

■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평가를 한다. 평가에서 의성군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총실한 이행 △위기가 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 MOU추진 △민관이 협력한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등 우수한 복지정책 추진 역량을 여실히 증명했다.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유공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공공의료중심 돌봄체계구축, '이웃-마을-읍면' 단위의 돌봄체계 구성 등 노인 의료-돌봄 사업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반했다. 군은 올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비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돌봄이 필요한 553명의 대상자에게 4대 핵심 돌봄서비스(보건 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김천, 겨울 스포츠의 꽃 여자 프로배구 인기

흥경기 김천실내체육관 4375석 전 좌석 매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은 지난 17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3라운드 흥국생명과의 흥경기에서 2시간 18분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 점수 3대2로 승리했다.

김천실내체육관에서는 4,375석 전 좌석이 매진, 겨울 스포츠의 꽃 여자 프로배구의 인기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경기에서 주인공은 한국도로공사 주장 '배구 천재' 배유나였다. 양 팀 최다 득점 25점을 기록하며 역대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달성했다. 미들블로커로서 블로킹 4득점과 서브에이스 득점과 공격 효율은 45%에 달했다. 배유나의 활약 덕분에 경기 후반 부키리치, 타나차의 공격도 살아나면서 결국 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강호 흥국생명을 만나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역전 우승(리버스 스윙)을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 시즌 초반 지속되어 온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820억 투입...공영주차장 조성

726면 시민 행복주차장 확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민선 8기를 맞은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구미시 주차장 관련 업무를 1명에서 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확대돼 총 4명의 '주차시설팀'이 맡는다. 주차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김장호 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속해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주차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를 기대,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구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지역 주차환경 개선

올해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한 결과 봉곡동 대구은행 인근 공영주차장(봉곡동 284-5)을 활용한 사업비 60억 원, 3층 13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12월 초에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공모사업인 구미국가산업3단지(진평동 644-6번지)에 사업비 60억 원, 3층 150면 규모로 주차 시설과 회의장 등을 갖춘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확정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평프라자 인근(구평동 449-1 일대)에는 사업비 79억 원, 지하 2층 173면 규모의 구미시 최초 지하 공영주차장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항공원 주차장(산동읍 신당리 2017번지)을 활용 사업비 100억 원, 지하 1층 233면 규모의 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은 내년 1월 착공한다. 지난 9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구미초등학교와 도솔중학교에 각각 300억 원, 22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구미초에는 돌봄 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지하 1층 28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도솔중에는 급식소, 강당 등 학교시설과 지하 2층 150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 도심 속 시민 행복주차장

시민 행복주차장 사업은 시민 소유의 활용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주차장 임차 운영은 공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주차장을 단기간, 적은 비용의 보수만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약 3곳에 시행하던 시민 행복주차장 사업은 구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개소, 총 726면의 주차 공간을 도심 속 곳곳에 확보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66면 규모의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 주차장은 국토부에 끈질긴 건의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로 1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구미의 대표 핫플레이스인 금리단지 활성화와 금오산 리프리티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기울였던 구미시와 각산마을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였다. 117면 규모의 신평동 공영주차장은 금오공대 이전 후 어려웠던 신평시장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신평 지역은 구도심으로 주차장이 없고 경찰서 등 각종 업무시설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었다. 일대 상인들은 주차 공간 확보로 골목상권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시민 참여형 사업 적극 활용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안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최근 물가에 맞지 않는 보조금으로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앞으로 조례 개정 등으로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 시민과의 동행을 준비 중이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 대형 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과 민영 노외 주차장을 사용 시간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도 조례를 신설해 도심 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 통합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시는 주차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주차장 현황을 제공,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주차 요금 결제 신청으로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사전 카드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무정차 출차로 주차장 내 혼잡을 방지하고 기존 주차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의 공영주차장 운영

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분석해 이용률이 낮은 시간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추진 중이다.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이 주변 불법 주차차로 이어져 텅 빈 주차장을 앞에 두고 인근에 불법 주차차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막고자 무료 개방을 하게 됐다. 금오산대주차장은 지난 7월부터 주중, 주말 상관없이 심야(자정-오전 4시)를 제외하고 무료로 개방했다. 10월부터는 금오천 공영주차장을 주말에 무료로 개방했다. 시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해 주변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금오산과 금리단지, 구미시 원도심으로의 발 걸음을 가볍게 해 주고 일대에 활기가 넘치도록 힘 쓰고 있다. 이은진 기자

'상주 낙동강전국 소년영상제' 성료

경산 하양초 최우수 대상

경북도와 상주시 등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낙동강전국소년영상제'의 최우수 대상은 경산 하양초(김민우 등 5명)의 '피스맨이 차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영상제에는 전국 초중고교생 468명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출품했다.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3편을 본상으로 선정했고 14편을 입선작으로 뽑았다.

하양초의 '피스맨'은 어느 날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되려 가해자가 되는 일명 '학폭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학생들은 이 바이러스를 막고자 스스로 학교폭력 방위대가 되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흥미롭게 전개했다. 심사위원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나가고 소통과 대화의 소중함을 잘 표현해 많은 공감을 샀다"고 평가했다. 이경호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달성 눈앞

홍보챌린지·기부품앗이 성공 요인으로 평가 받아

권기창 안동시장은 20일 안동시 민원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일 오전 시장실에서 열리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하고, 오후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2023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회에 참석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봉화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일 오전 현서면 덕계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덕계리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준공식 및 주민화합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주도 찾아 청송사과 홍보

청송군은 지난 15일 제주도 대정농협 본점 하나마트 앞에서 한국농촌지도자청송군연합회(회장 윤수석) 주관으로 청송사과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송군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앞장서 청송사과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대표 과일인 만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송사과를 홍보했다. 특히 청송군이 추진 중인 '꼭지 달린 사과를 나눠주며 꼭지 있는 사과가 청송사과라는 것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양에 양수발전 유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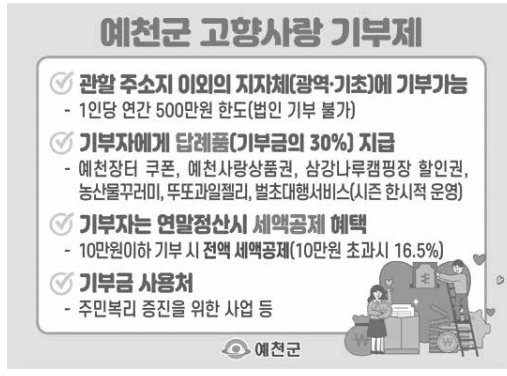
영양군새마을회는 19일 법원사거리 앞에서 영양군 양수발전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국비 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전 군민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날 영양군 새마을회는 김종탁 회장을 포함한 회원 50명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권윤동 기자

예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예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 15일 기준 9억 300만 원이다. 앞서 예천군은 지난 8월 기부액을 공개한 전국 지자체 17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예천군의 이같은 성공 요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챌린지'를 진행하며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군민들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기부품앗이를 하며 모금 활동을 이어온 공무원들

의 노력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던 것도 한몫을 했다.

여기에 출향인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이 더해져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소액 기부를 활성화해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출향인들과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활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연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안병욱 기자

안동시의회 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내년 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142건, 촉구 183건, 건의 296건 등 총 621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41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은 원안 가결돼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정 시설 사업비와 경장경비 등은 삭감해 건전재정의 기초를 유지하고, 펜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4년도 예산안 중 108억 9705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호석, 권기윤, 안유안,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순, 김경

도, 손광영, 권기탁, 김호석, 김상진, 김새롬,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손광영, 권기익, 김경도,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권기탁,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김순중, 권기윤, 박지선, 김창현, 안유안, 김정림 의원 공동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정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최준길 기자

봉화군, ASF 차단 방역 집중

봉화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최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양돈농장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동절기를 맞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겨울철 방역수칙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기상청의 대설 주의보 또는 특보 발령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설 기간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폭설시 주요 방역수칙은 △열선 및 소독기 노출 보온덮개 설치로 소독기 동파방지 △산비탈에 있는 농장은 눈이 녹은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방문 절대금지 △눈이 내리는 동안 축사내부 소독 및 눈이 그친 뒤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환경부서 신고 △소 농장에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강화 △스낵기, 외화갑아싱기, 구사·구충 등 기본 방역 행동수칙(22가지) 준수 철저 등이다.

아울러 군은 대설 기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야산 인접 등 위험지역 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대설 이후 군과 축협 공방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양돈농장 주변 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 "겨울철이 시작되고 우리 군을 비롯해 인근지역에 멧돼지 ASF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농장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지역 14개 시군에서 38건이 발생했으며, 멧돼지에서 검출은 전국 39개 시군, 3,437건 중 봉화군에서는 52건이 검출됐다. 전성기 기자

안동병원 결핵 적정성 1등급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5차)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안동병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508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항목은 결핵군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지표이다.

안동병원은 종합점수 97.3점을 받아 전체 평균 91.8점, 상급종합병원 96.4점, 종합병원 91.2점을 상회하는 결과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결핵군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고, 결핵 신환자의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환자 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강신홍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결핵 적정성 평가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내년 완료 예정인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경북 투자유치대상 전 부문 수상

활력있는 지역경제 건설 노력 투자기업 '대상' 등 영예 안아

영주시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 투자유치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투자기업', '공무원' 총 3개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평가이다.

영주시는 한 해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공

로를 인정받아 자치단체 부문과 공무원 부문(투자유치와 김동영 주무관)에서 각각 '장려상'을, 투자기업 부문에서 SK스페셜티(주)가 '대상'을 수상해 전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민선 8기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5100억 원(4개사, 240명 고용 창출) 투자유치 실적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 7월 SK스페셜티(주)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투자유치 및 2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

끌어냈다.

이 외 찾아가는 기업 유치활동, 맞춤형 사후관리, 해외모니터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고충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성화 활동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분투해왔다.

한편, 향토기업 SK스페셜티(주)는 지난 2021년 20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STAXX)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투자기업 부문에서 단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전성기 기자

청송군, 농업정책 경북도내 최고 입증

도 시책평가 수상 잇따라

청송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각종 농업시책평가에서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 '대상', 산지유통 시책평가 '최우수상', 식량시책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농정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경북 최고의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는 과수생산분야 예산 확보 및 과수산업 육성 노력, 지자체 관심도 등으로 평가했고, 산지유통시책 평가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마케팅조직 역량 등이며, 식량시책 평가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 등을 평가했다.

청송군은 미래형과원 조성 목표비 지원, 저온피

해예방을 위한 과원 미세살수장치지원 등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에도 힘써 국내 사과 시장의 유통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다.

또한 사과뿐만 아니라, 쌀 과잉문제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콩 생산농가 지원으로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청송군 농정발전과 경쟁력 있는 미래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꿈나무프로선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 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